

여천, 석유화학제품 수출물류 숨통

해양부, 여천일반부두 2선식 2007년 하반기 착공 ... 2010년 정식 개항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공사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2010년 말 마무리된다.

해양수산부는 1월18일 계동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여천민자부두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보조금 153억원을 포함해 572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업단지 근처에 2만톤급 선석 2개의 일반부두를 건설키로 했다.

여천민자부두주식회사는 상반기에 부두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0년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천민자부두주식회사는 부두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1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민자로 조달해 부두를 건설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34년간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다.

2010년 부두시설이 완공되면 여천일반부두는 연간 일반화물 104만3000톤과 컨테이너 화물 7만3000TEU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여천일반부두를 민간투자자로 건설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걸쳐 여천민자부두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4년 11월부터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6년 말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9>